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포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5월,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달

어린이주일 · 어버이주일 · 야외예배 · 찬양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교회에서는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각각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킨다. 또한 부서별 야외예배, 다락방 찬양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과 풍성한 교제의 기회를 갖게 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인 오늘, I·II·III부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묵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어린이들이 속한 교회학교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아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2층 복도에서 '예쁜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면서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심사는 관람자인 성도들이 비치된 스티커를 이용해 직접 참여하게 된다.

유치부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꽃을 어버이날 선물로 달아드릴 수 있도록 꽃 만드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유년부에서는 달란트 시장을 열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나누어 주게 된다.

초등부는 찬양 등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선생님들이 준비한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줄 예정이다.

각 부서 야외예배

공휴일인 11일(목) 교회학교와 찬양대 등 교회의 여러 부서가 야외예배를 드린다.

초등부 교사와 학부모는 양재 시민의 숲에서, 대학부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청년부는 유명산 휴양림에서, 할렐루야찬양대는 양재시민의 숲에서, 스테반회는 홍릉수목원에서 각각 야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게 된다.

다락방찬양대회

2000년 다락방 찬양대회가 5월 12일(금) 오후 7시 1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락방 또는 연합다락방, 가족팀 등이 참여하게 될 이번 다락방 찬양대회는 참가자들이 지정곡(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있는 사람" 1절)과 자유곡 등으로 찬양 실력을 겨루게 된다.

심사는 복장 및 태도와 표정, 음정, 박자, 화음, 참여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심사위원은 각부 찬양대 지휘자이다.

시상은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등에 해당하는 3개 팀에 주어지며 장려상과 참가상도

준비돼 있다. 시상식은 14일(주일)에 한다.

강남노회 제 26회 정기회

서울 강남노회 제 26회 정기회가 9일(화) 소망교회당에서 열린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종윤 목사를 비롯 부목사 전원과 박철훈·오정수·왕경래·하영수·노송성·박두호 장로가 총대로 파송된다.

김치동문회 총회 15일 개최

한국교회갱신연구원(김치) 동문회(회장 차정은 목사) 총회가 15일(월)오후 5시 30분 강남 YMCA 3층 그릴 및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을 선출하며 새로운 동문을 환영하는 순서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동문회는 1994년 3월에 창립됐다.

2000 동해작전

6월 6일(화) - 25일(주일), 20일간
새벽기도회 오전 5-6시

한마음 한가족 축제

6월 6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실실내종합체육관에서

집사·권사 선출을 위한 제직회와 공동의회

우리 교회는 2000년 안수집사·권사 투표를 위해 임시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연다.

이번 투표에서는 안수집사 20명, 권사 40명을 선출하게 된다. 집사 후보는 14일(주일) 찬양예배 후에 가지는 임시제직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종다수로 배수공천한다.

선거위원회에서는 이날 투표를 위한 후보자의 명단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며 제직들이 각자 20명의 이름을 적어내면 된다. 투표는 1회만 실시한다.

권사 후보는 15일(월) 임시 당회에서 40명을 공천한다.

임시 제직회와 임시 당회를 통해 선출된 집사·권사 후보 명단은 득표 순으로 21일(주일) 본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28일(주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집사는 출석 회원 2/3 이상 찬성을 얻은 자 중 득표 순으로 20명을 정한다. 단 2/3 득표자가 20명에 안될 경우도 투표는 1차만 한다.

권사는 출석 회원 2/3 이상 찬성을 얻은 자

로 한다.

집사 후보 자격에 대해 선거위원회에서는 총회헌법 2편 8장 21조에 따라 "안수집사는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무혼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 70세 미만(31년 생은 포함) 30세 이상 된 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10절에 해당되는 자"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무혼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50세 이상 70세 미만된 여신도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라고 밝히고 있다.

제자의 도 ②

그리스도의 동역자

빌립보서 2장 17-24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압으로 인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언단을 너희가 아니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합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중운 목사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더불어 살고 더불어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혼자 대속의 사역을 이루지 않으시고 열 두 제자를 부르시어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도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도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바울과 디모데를 대표적인 인물로 들고 있습니다.

1. 바울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동역자라고 말하며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빌 2:17). 전제란 이방 종교의 제사법에서 나온 단어로 이방 사람들은 제물을 바칠 때 붓는 술을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제사의 방법을 알고있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단 위에 놓고 제물로 드릴 때 제물에 불을 붙이는데 거기에 술을 부으므로 술이 증발되면서 동물을 불사르는 것이 더욱 빨라지므로 제사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자신이 전제로 드리게 되더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봉사를 높이 칭찬하면서 그들이 드린 제물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은 희생 제물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체는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입니다. 바울 역시 전제로 제물 위에 부음을 입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본받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희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희생은 자신의 노력과 인내와 양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희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가인과 아간은 불순종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결국 불순종하는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도 되지 못하고 그를 따를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제물 위에 전제로 부음을 받는 희생의 사람,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2. 디모데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난 청년 디모데는 바울

과 부자관계 같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생각이 같고 목표와 방향과 뜻이 같았습니다(20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가진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겸손과 복종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가장 기초가 되는 덕성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우리에 둔 채 골짜기를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는 항상 양의 형편을 알고 그에게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19절). 디모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했습니다(21절). 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신의 삶에 우선권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22절). 타인과 더불어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각각 다른 은사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아니라 더불어 일하는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더불어 일합니다. 자기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의 뜻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고 깨끗하게 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기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부처처럼 친밀한 관계였으나 수평관계를 가지고 더불어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대차이가 있었으므로 갈등도 있었겠지만 복음을 위하여 함께 더불어 일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자신을 버릴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으며 깨끗하게 질 줄도 압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만 붙여지는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고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구원 사역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겸손과 순종의 도리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어머니의 기도와 일기장과 ...

김혜린(대학부)

어느 날 새벽, 문득 눈을 떴으나 몸을 움직여 일어날 수가 없었다. 어머니께서 새벽기도회에 가시기 전 침대 앞에 앉아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 당시 내 마음 속은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로 혼란스러웠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 속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타협하지 않으려다 야기된 문제들의 무게에 눌려 내 몸에선 어느새 주님 안에서의 생활과 어려서부터 형성되었던 기독교적 생활 습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

하게 되었고, 무감동한 상태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지내던 나의 삶에 그날 새벽,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무언 중의 큰 교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큰 계기였음에도 내 상태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못했다. 부정적 사고의 먹구름이 내 마음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초등학교생이었을 때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신나게 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적혀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마음속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품고 살았었는데 어느새 세상에 대한 불만들에 치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지...

신실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내가 비록 연약해서 주님을 멀리 할 때도 나를 교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나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어려서부터 난 복된 가정 속에서 자랐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가족 모두가 기독교인인데다가 친척집 중에서도 안 믿는 집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어머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접하게 되는 나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에서 잠시 넘어졌지만 아주 잊혀지지 않고 주 안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마음 속에 계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온 가족이 함께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아울러 우리 서울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역

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단순한 피로 연결된 가족만이 아닌 바로 교회 안에서의 한 가족들로서 서로 이끌어 주고 밀어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5월에

새색시에게 드리는 시

신동기(집사)

보소서!

벚꽃이 꽃비로 내리는

어느 봄날

하이얀 베일이

살포시 걸어지면

가만히 드러난

새색시의 연한 미소

하늘 가득히 향기가 퍼지는

축복의 날!

끼치발 들고

백년을

천년을

약속한 푸른 입맞춤

만세 전

그리움으로 짝지어준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당신!

하늘에 감추어진 신비 속에

너와 나

하나되는 사랑의 외침!

영원한 연인이어도 좋으라...

새로운 땅!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비가와 창수가 나도

피릇 파릇한 사랑의 날개로

등지 들고 단물 내어

뽕얀 새벽 하늘

기도로 창을 내

응기 종기 모여 앉아

목숨 같은 아내 되고

하늘 만한 엄마 되리

청년부에 경사났네!

정병무(장로, 청년부 부장)

계절의 여왕이라 일컬어지는 5월, 겨우내 앙상하게 마쳐 죽었던 것 같았던 나무 가지에도 물이 올라 저마다 생명력을 뽐내며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아름다운 달에 우린 가정을 생각한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정하신 제도요 사회의 기본 단위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시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로써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다.

가정을 이루는 의례인 결혼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결혼 적령기에 처한 청년들과 혼기에 이른 자녀를 둔 부모에게

결혼 상대자를 찾는 일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같은 믿음을 가진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일은 큰 과제이기도 하다.

차제에 우리 교회 청년부 자랑할 만한 경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금년 들어 벌써 일곱 쌍이 부부가 되었고 다음 달엔 또 세 가정이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옛날엔 교회를 '연애당'이라 비난도 했다지만 교회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생각할 때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진전히 교제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애당' 분위기라도 조성해 주고 싶다.

지금까지 청년부에서 만나 가정을 이룬 이들, 앞으로 결혼할 청년 부부들이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길 축복한다.

폐역하고 거스리는 세대에 주님께서 순례길을 같이 갈 길동무를 주셨으니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겸손히 섬기며 그 크신 사랑을 이웃에게 맘껏 전하고 베풀면서 감사가 커지는 가정들이 되길 기원한다. 교만한 마음은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며 회개하고 성별된 삶으로 승화시켜 주님 주신 참 평안을 가득히 누리시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새로 가정을 이루고 이를 열 쌍의 청년뿐 아니라 서울교회 모든 가정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못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실한 가정이 되시어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순례자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린다.

사람 많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다시 찾은 한 어머니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미친듯이 아이의 이름을 외치며 군중 속을 헤맸는데 그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고 몸의 모든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다시 찾았을 때, 그 아이가 너무도 귀히 여겨져 서울부터 종착역인 광주까지 한번도 무릎에서 내려놓지 않고 꼭 끌어 안고 갔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흔 아홉 마리 양을 우리에게 남겨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다시 찾은 양을 인내 찬치를 베푸는 비유를 주셨습니다. 연이어 주님은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안타까움과 다시 찾았을 때의 환희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5월의 테마전도

“입은 앙 찾기”

잃은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 이번 달엔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1. 눈을 들어 찾읍시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얼굴, 낙심 중에 빠

진 영혼, 등록은 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봅시다.

2. 하루 세번씩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로 능력의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3. 전화하고 찾아갑시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4. 사탄의 권세를 결박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구체적인 약속을 하여 함께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규정 목사 (전도위원회 지도)

장년부 철야기도회를 마치고

새 예배당을 향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번생(장로, 장년부 부장)

희망찬 5월! 붉은 철쭉이 타는듯 새 예배당 건축 현장을 쓸어 안은 목요일 밤. 장년부 교사와 학생들이 건축 현장에 모여 뜨거운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낮에 내린 비로 촉촉히 젖어 더욱 진해진 새 예배당 건축 현장은 주님의 보혈이 흠뻑 묻어 나는듯 세워진 기둥마다 우리의 기도가 숨쉬는 것 같았고 잘 다듬어진 예배당 앞 뜨락은 우리 기도의 보너스로 주신 것 같아 우리의 가슴은 더욱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마치 공중에 매달린 방주같은 새 예배당! 아마도 서울의 아니 이 나라의, 세계의 방주 사역을 감당할 미래의 서울교회 모습이었다. 예배당 앞의 많은 계단을 보니 벨엘에서 아홉이 꿈꿀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축복의 상징이 아닌가?

계단 하나 하나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로 수놓아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기념비적인 간증으로 오래오래 남기리라.

새 예배당 기둥은 날마다 높이 높이 올라가는데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올라가는 성전의 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실제로 혼란되지 못한 허술한 자신의 모습들을 점검하며 기도회를 시작했다.

에베소서 4장22-3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가 주어졌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같이 할 것을 다짐하며 심령을 새롭게 단장하여 새 예배당에 입성하는 장년부가 되기를 결단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무르익었던 기도의 깊이와 찬양은 향기로 퍼져 주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 확신한다.

“우리 모두 새 예배당을 향해 새 사람을 입으라”

새예배당 건축현장 소식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에 의한 금주에 4층 바닥 계단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전면노출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될 것이며 1층 중예배실 냉난방 설비공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1층에는 현장 사무실들이 설치되었고 앞뜰 마당 정지작업도 진행된다. 5월의 화창한 날씨처럼 공사가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 회사들의 재부 구조를 든든케 해 달라는 기도 요청도 있다.

등정

- * 장덕 집사(1교구)는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 지하 1층에 'FILA' Asem점을 개업했다 (☎ 6002 - 5330)
- * 이번 주 식사는 양숙란 권사(김혜연·박은영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중등부는 8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이동용 목사 방송실고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2. 다락방 찬양대회를 위해
3. 복녘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외약도

